

Global ESG Brief

탄소 가치사슬 관리에서 찾는 ESG 투자 기회

ESG이슈

2025년 10월 2일

Scope 3 배출량 관리가 가치 창출 기회로 작용

9월 말 발표된 BCG-EcoVadis 공동 보고서는 방치된 Scope 3 배출량이 2030년까지 연간 5,0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와 동시에, 공급망 탈탄소화 투자가 3~6배의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PwC 조사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66%가 ESG 공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동일한 트렌드를 뒷받침했으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Climate Week 2025에서 더욱 확산됐다. Climate Week 2025에서는 Scope 3 관련 논의가 연일 계속되면서 글로벌 기업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Scope 3 관리를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가 아닌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Scope 3: 기업이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제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치사슬 (supply chain)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더 많은 리포트 보기

BCG-EcoVadis 보고서는 탄소 가격이 톤당 76달러 수준에 도달할 2030년에는 관리되지 않는 Scope 3 배출량이 S&P 500 기업 평균 EBIT의 15~20%에 해당하는 연간 5,000억 달러의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선제적 탈탄소화 투자는 비용 측면에서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효율화 협력과 미래 규제 비용 회피를 통해, 매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 확보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 3~6배의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Scope 3 관리 역량이 주식 투자 수익률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Moody's와 S&P는 신용등급 결정의 30% 이상에서 ESG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높은 ESG 성과 기업들은 채권 발행 시점에서 약 10bp의 수익률 우위를 누리고 있어 선제적 대응 기업들의 자본비용 우위가 구조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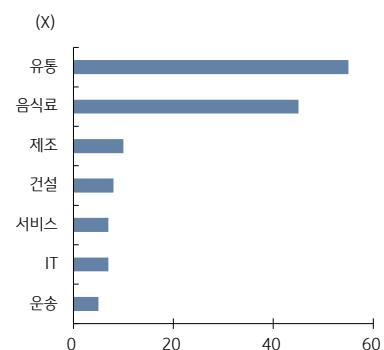
글로벌 ESG공시 기준 완화 속 지역 의무화 가속

9월 30일 하루 동안 ESG 공시 규제 환경을 뒤바꾼 세 가지 발표가 연달아 나왔다. IB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온실가스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며 Scope 3 측정 부담을 줄였고, 동시에 캘리포니아는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기업 4,160개사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명단을 공개했다. 10월 1일 EU는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을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IBB의 ESG 공시 관련 최소 기준은 낮아졌지만, 캘리포니아와 EU라는 핵심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 공시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대상 기업 중 60% (2,503개)가 캘리포니아 외 소재 기업이며, 이들에게는 연간 최대 50만 달러 벌금이라는 실질적 강제력이 적용된다. EU CBAM은 2026년 본격 시행 시 연간 147억 유로 (161억 달러) 규모의 탄소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PwC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66%가 공시 투자를 확대하고 AI 활용은 1년 새 3배 급증했는데, 이는 다중 규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효율적 대응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선택적 공시에서 의무적 공시로, 정성적 공개에서 정량적 측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조기 대응 기업과 지연 기업 간 자본비용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다. ESG 공시 품질이 자본시장에서 기업 벤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할 것이며, 선제적 투자 기업들이 지속적인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다.

Scope 3 배출량의 Scope 1·2 대비 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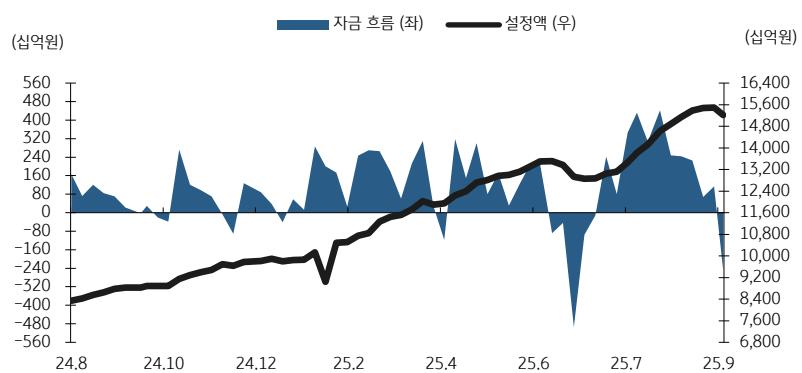


자료: BCG, KB증권

ESG 펀드로 본 ESG 투자 동향

SRI 펀드는 금주 2,492억원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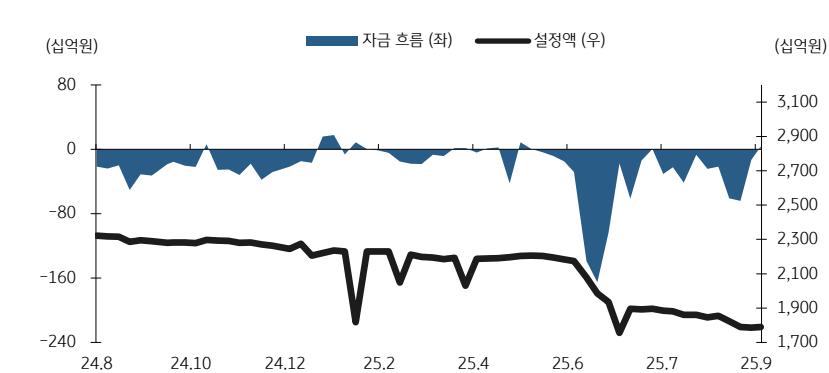
그림 1. 국내 SRI 펀드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2. 국내 ESG 주식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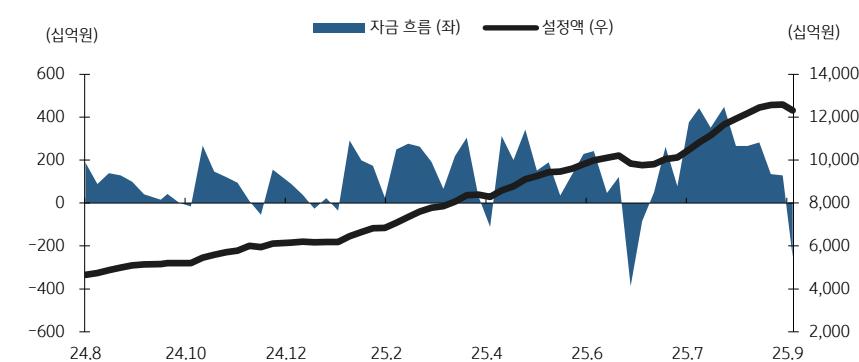
ESG 주식형 펀드는 금주 36억원 유입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3. 국내 ESG 채권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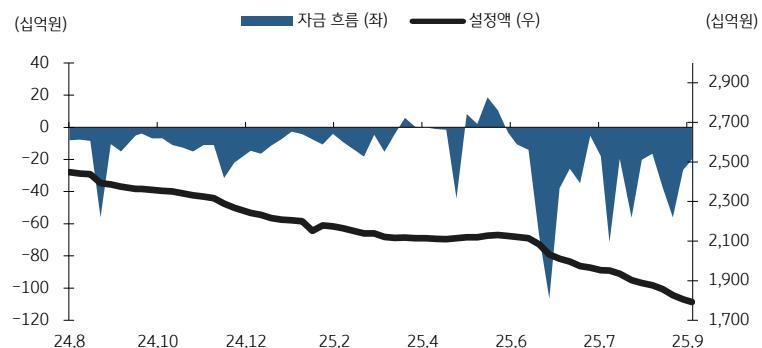
ESG 채권형 펀드는 금주 2,516억원 유출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4. 국내 녹색성장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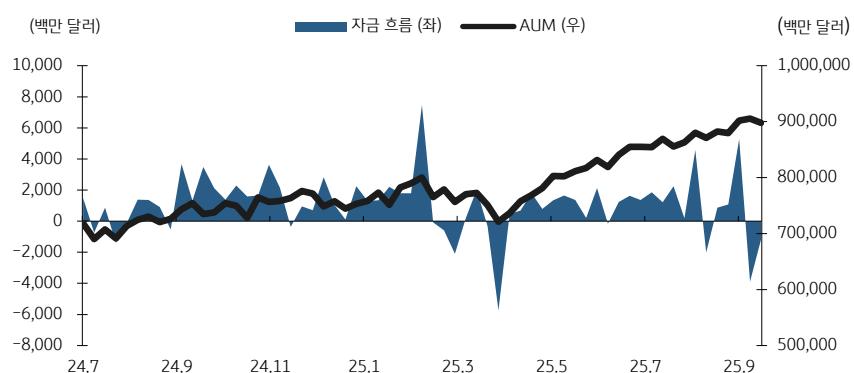
녹색성장 펀드는 금주 201억원 유출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5. 글로벌 ESG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주별)

글로벌 ESG ETF으로부터 12억 달러 자금 유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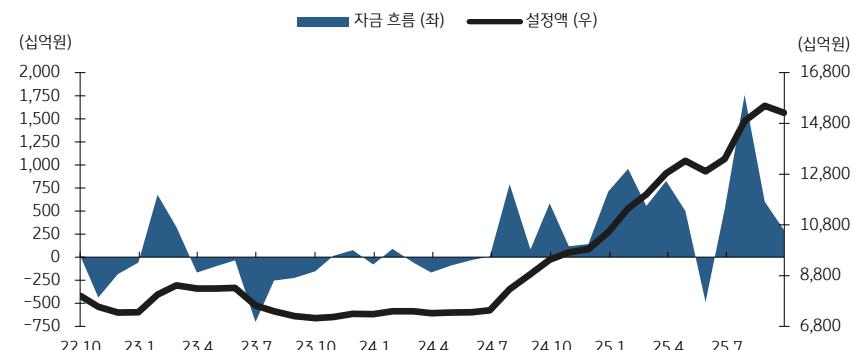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주: 국내외 1,950개 ESG ETF, 상장폐지/청산/인수 반영

그림 6. 국내 SRI 펀드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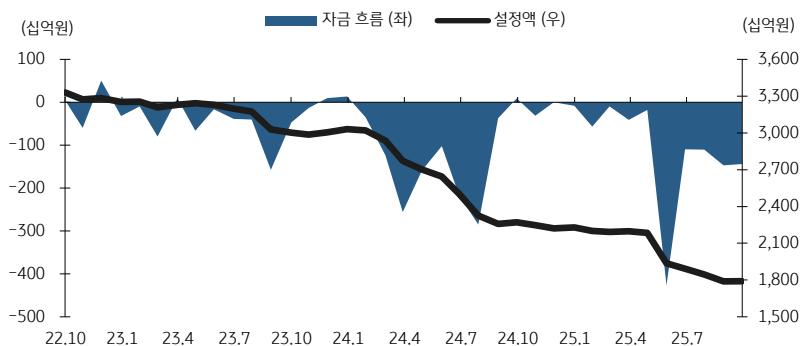
SRI 펀드는 10월 들어 2,951억원 유입 중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7. 국내 ESG 주식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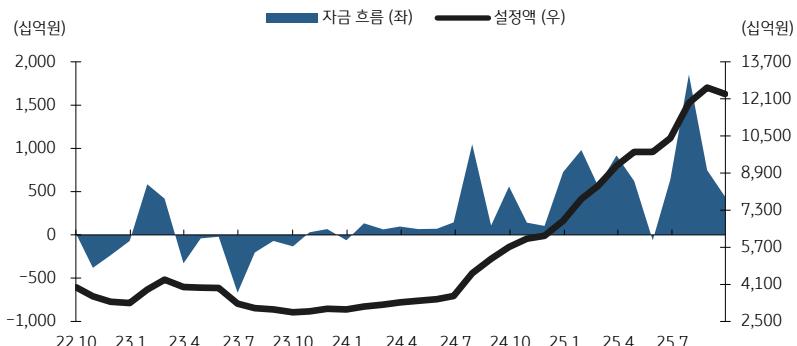
ESG 주식형 펀드는 10월 들어 1,440억원 유출 중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8. 국내 ESG 채권형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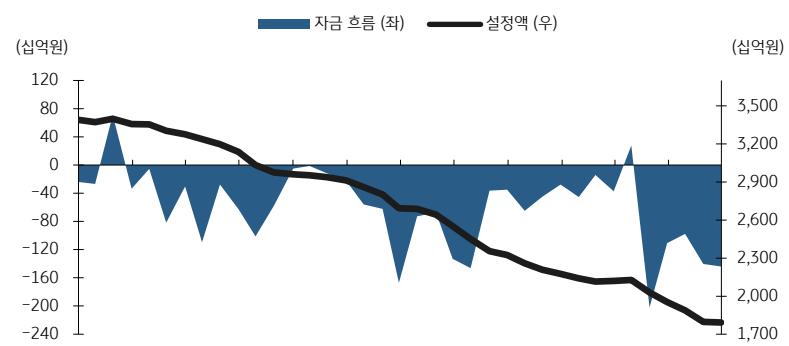
ESG 채권형 펀드는 10월 들어 4,424억원 유입 중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9. 국내 녹색성장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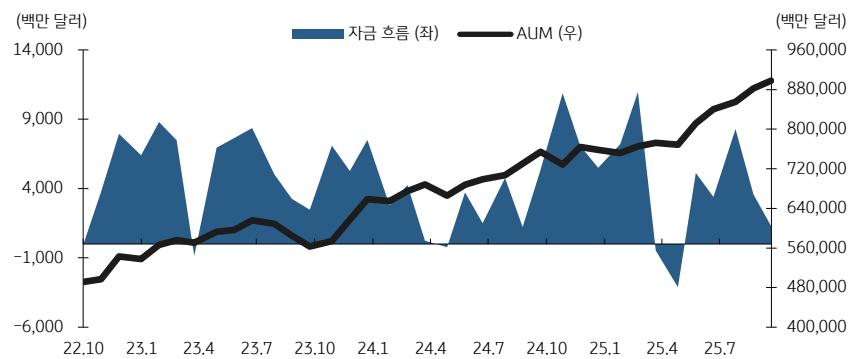
녹색성장 펀드는 10월 들어 1,440억원 유출 중



자료: FNSpectrum, KB증권

그림 10. 글로벌 ESG 펀드의 AUM 및 자금 순유입 (월별)

글로벌 ESG ETF는 9월 들어 13억 달러 유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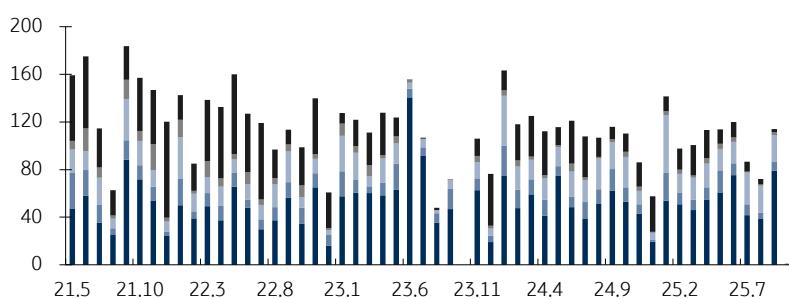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주: 국내외 1,950개 ESG ETF, 상장폐지/청산/인수 반영

ESG 채권발행 시장 동향

그림 11. 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 (월별)

(십억달러) ■ 녹색채권 ■ 사회적채권 ■ 지속가능채권 ■ 지속가능연계채권 ■ 지속가능연계대출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1: 2025.10.2 기준

주2: 25년 10월 2일 현재 누적 발행량

그림 12. 국내 ESG 채권 거래량 (월별)

(억원) ■ 녹색채권 ■ 사회적채권 ■ 지속가능채권



자료: KRX, KB증권

주1: 2025.10.2 기준

주2: 25년 10월 2일 현재 누적 거래량

표 1. 최근 한 달간 국내 ESG 채권 발행 현황

발행기관	채권종류	총 발행 금액 (십억원)	발행 금액 (십억원)	만기	발행일	만기일	국고채 대비 (bp)	등급 대비 (bp)	발행사 대비 (bp)	발행목적
에코비트	녹색채권	30	30	2Y	25/9/30	27/9/30	58.9	-9.3	-18	자회사 여수 환경에너지시설 건설
아이엠뱅크	녹색채권	110	110	2Y	25/9/26	27/9/26	16	-1	-2.7	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현대캐피탈	사회적채권	300	50	FRN	25/9/26	27/9/26	FRN	FRN	FRN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50	FRN	25/9/26	28/9/26	FRN	FRN	FRN	
			130	3Y	25/9/26	28/9/26	21.9	0	0	
			70	5Y	25/9/26	30/9/26	27.9	0	0	
현대커머셜	녹색채권	50	50	3Y	25/9/26	28/9/26	27.5	0	0	친환경 분야 지원 대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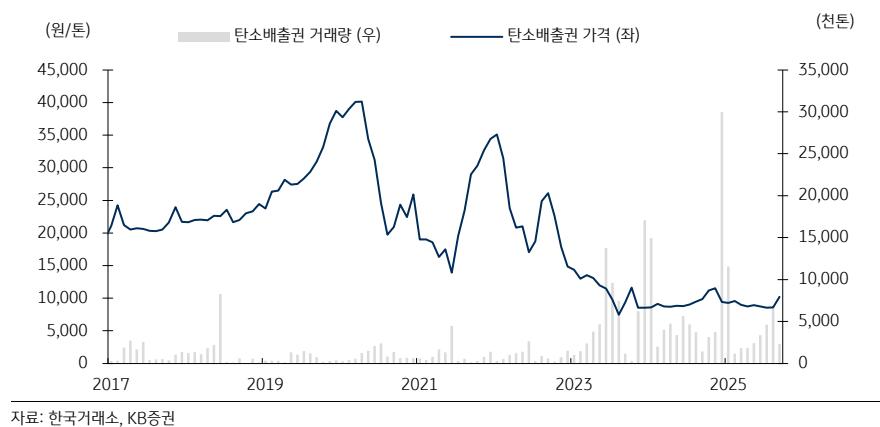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B증권

주1: 주택금융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물량 제외

주2: 2025.10.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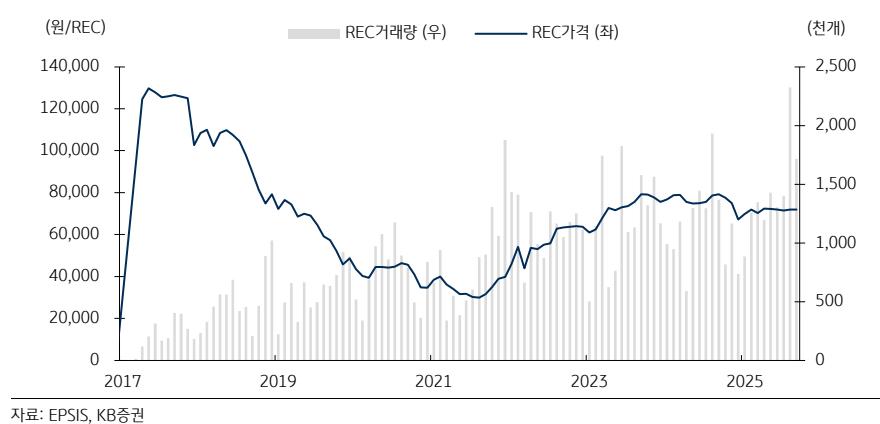
탄소배출권 및 에너지 전환 동향

그림 13.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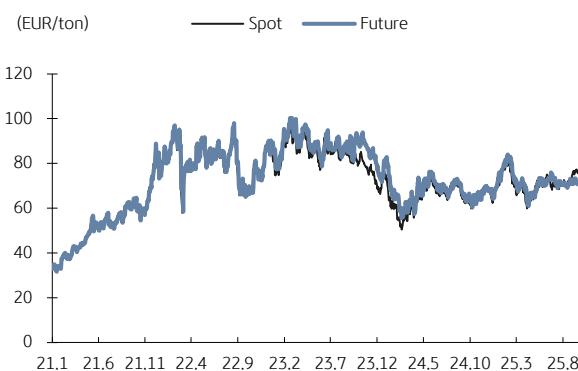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KB증권

그림 14. 국내 REC 가격 및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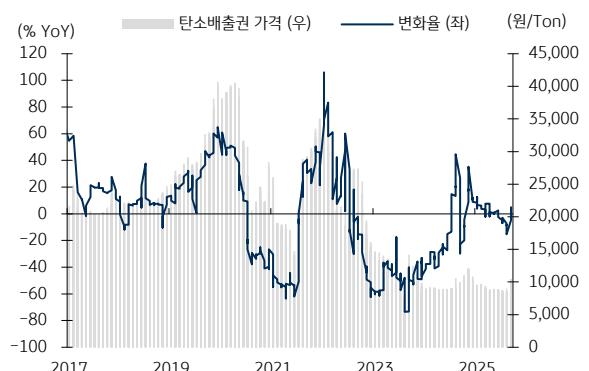
자료: EPSIS, KB증권

그림 15.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 LESG, KB증권

그림 16. 중국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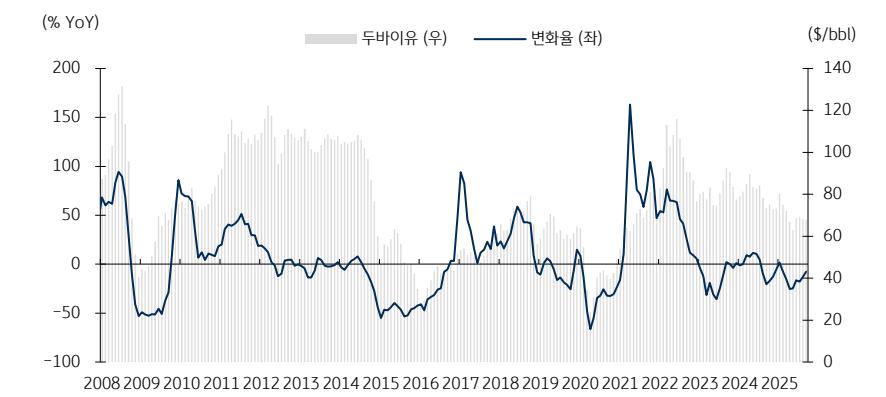
자료: CEIC, KB증권

그림 17. 글로벌 석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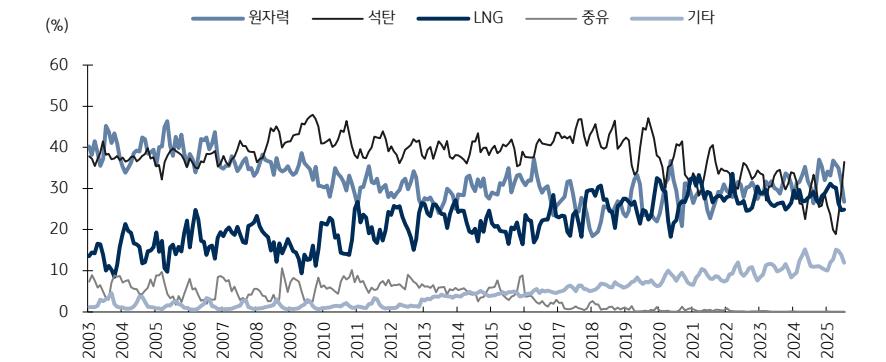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8. 두바이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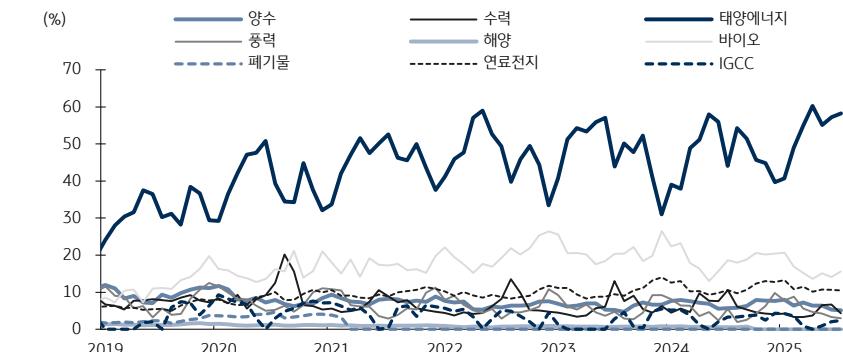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9. 국내 발전원별 발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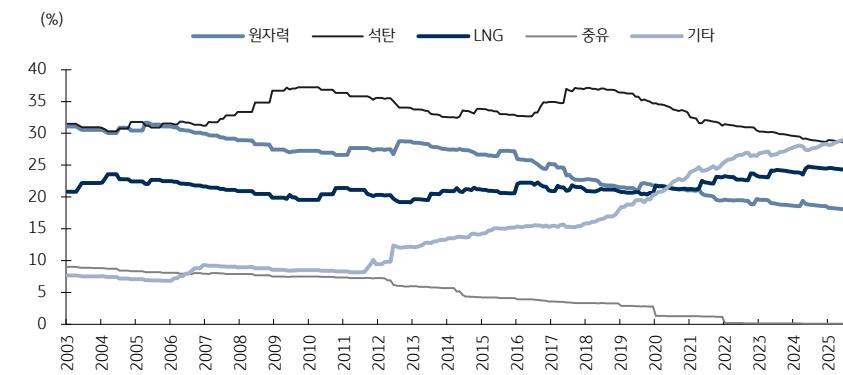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0. 국내 신재생 발전원별 발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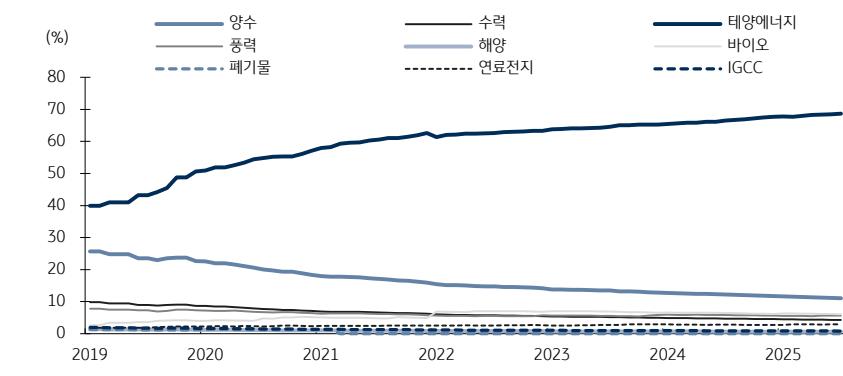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1. 국내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그림 22. 국내 신재생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자료: 한국전력, KB증권

ESG 등급, ESG 관련 논란 이슈 동향

표 2. 최근 한 달간 MSCI 기준 ESG 평가 등급 변동 기업 (Rating)

기업 (Upgrade)	종목코드	날짜
NH투자증권	005940	9/26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9/22
셀트리온	068270	9/19
LG	003550	9/12
HD현대일렉트릭	267260	8/22
기업 (Downgrade)	종목코드	날짜
SK텔레콤	017670	9/25

자료: MSCI Website, KB증권

표 3. 최근 한 달간 ESG 관련 이슈 발생 국내 기업 (Controversial Issue)

날짜	기업 (종목명)	종목코드	논란 이슈
9/18	NAVER	035420	네이버 부동산 정보 독점 두고 벌금 2억원 선고 (MTN뉴스)
9/18	HD현대중공업	329180	조선소 안전사고 잇따르는데... CCTV는 반대하는 노조 (조선비즈)
9/17	HD현대중공업	329180	“외국인 조선업 채용 늘리면 우리 일자리 줄어”...울산 주민들 “광역형 비자 확대 반대” (중앙일보)
9/12	삼성물산	028260	경찰, '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 삼성물산·하청업체 3명 입건 (연합뉴스)
9/9	NAVER	035420	'SNS 차단' 네팔 Z세대 시위로 19명 사망...정부 '복원' (뉴스1)
9/8	LG에너지솔루션	373220	LG엔솔, 美 홀랜드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더트래커)
9/7	LG에너지솔루션	373220	美 FAA, LG엔솔에 6만弗 과태료 경고 (매일경제)
9/5	현대차	005380	美, 현대차-LG엔솔 '불법 고용' 수사...한국인 포함 450명 체포 (동아일보)
9/5	LG에너지솔루션	373220	美, 현대차-LG엔솔 '불법 고용' 수사...한국인 포함 450명 체포 (동아일보)
8/28	SK텔레콤	017670	‘유심 해킹’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개인정보위, 1348억 원 부과 (서울경제)

자료: 언론종합, KB증권

주: *는 금주 추가 이슈

투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